

활기찬 고양시 열린 시의회 힘으로!

고양의정소식

Vol.16

시 봄바다

기획특집 세계 10대 도시를 찾아

고양인 25시 이철민 前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장

아트 인 시티 고양, 한국의 화원 꿈꾸다

2009. 04

www.goyangcouncil.go.kr



봄 바다

시인·수필가 김 진 영
(고양의정소식 편집위원)

이른 봄 동해안
7번 고속도로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쪽 뻗은
관동팔경을 찾아
①표표(飄飄)히 나서면

쪽빛 파도가
깊이 잠든 푸른 호령을 흔들어
반도로 휘몰아친다.

깨어라 대지여!

선부른 주변 야욕에
시름 젖은 물빛처럼
②처연(淒然)함은
이제 접고,

심해에서 새 각오를
질푸르게 펴 올리며
용기를 북돋운다.

일어나라 대지여!

동해안 봄 바다로 가면
아련한 추억일랑
모두 접고

아침에는 설레며
석양에는 부끄럼자 앓도록
굳게 다잡힐 때다!

지기자!
이 아름다운 대지를!

(주)

① 표표(飄飄) : 가볍게 나부끼는 모양

② 처연(淒然) : 쓸쓸하고 구슬픈 모양

활기찬 고양시 열린 시의회 힘으로!

고양 의정소식

Contents



14



16



36

- 02 | 시 봄바다 - 김진영
- 04 | 시의회소식
- 08 | 브리핑 상임위원회 활동
- 12 | 시정소식 고양시정 소개
- 14 | 기획특집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찾아 - 대한민국 고양시
- 16 | 고양시 나들이 석주 권필 선생 시비 제막식
- 20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2 | 고양인 25시 이철민 前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장
- 24 | 의정중계식 주요안건 처리현황
- 27 | 건강상식 혈액 순환이 건강을 결정한다
- 28 | 열린창 '위기가정 무한돌봄' 절망 속에 찾은 희망의 다짐돌
- 30 | 기관탐방 고양시 가족여성과
- 32 | 문화포커스 클래식, 연극, DVD, 책
- 34 | 아트 인 시티 고양, 한국의 화원 꿈꾸다
- 36 | 아름다운 사람 전통가마공예가 - 이강연
- 38 | 의원동정
- 40 | 의원소개
- 42 | 시민의 소리 의회에게 바라는 시민의 소리
- 43 | 의회방청안내
- 44 | 표지 2009 고양국제꽃박람회 광고



표지설명
행주산성 행주대첩비

Goyangcouncil NEWS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며, 연구하는 열린 의정 제5대 고양시의회

■ 제141회, 142회 임시회 개최

■ 시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

■ 기획행정위원회 민원콜센터 방문 직원 격려

■ 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 건설교통위원회 자전거시설 벤치마킹

제141회, 142회 임시회 개최

—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로 주요 안건 처리 —



고양시의회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41회 임시회를 지난 2월 12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142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제141회 임시회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제정 및 개정되어야 할 사항,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의 안건을, 제142회 임시회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총15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항 등 다양한 심의 안건이 제출되어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 제141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브로맥스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
- ▶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고양시 도시개발(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 청취의 건

- ▶고양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142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된 주요안건

-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
-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정에 관한 질문 내용

- ▶케이블방송사 전횡적 횡포와 독과점 운영방식에 대하여
- ▶지역난방비 문제에 대하여
-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 ▶학교별 학력향상우수학교 지원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 ▶고양시 종합대학 유치 및 이전에 대하여
- ▶고양시 교육예산 편성에 대하여
- ▶고양시 종합교육정책에 대하여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신곡수중보 및 장항습지에 대하여
- ▶한강 환경 및 생태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하여
-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 ▶고양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하여
-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 ▶칼라투스콘크리트 포장 문제에 대하여
- ▶청소년증 발급에 대하여

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사랑과 봉사 실천에 솔선수범 —



고양시의회 배철호 의장은 지난 2월 4일 문병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2009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철호 의장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문병대 회장을 비롯한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도 적십자회비 모금 운동에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병대 회장은 “항상 적십자 회비 모금에 적극 협조해 주는 시의회와 고양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봉사사업 발굴과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매년 적십자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기탁, 노인요양원 방문, ‘사랑의 쌀’ 전달 등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Goyangcouncil NEWS

시의회 의장단 회의 개최

-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방향 설명과 신년 각오 다짐 -



고양시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의장실에서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

단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축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로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을 필두로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방향에 대한 설명과 각오를 다지는 한편, 위원회별 현안사항과 고양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양시의회 배철호 의장은 “올해는 각종 국제 규모의 행사 등을 앞두고 있어 의회차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원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단합된 힘과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 밝은 아침 간호센터 등 6개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들 위로 -



고양시의회는 지난 1월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외받고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4백여만원 상당의 ‘사랑의 쌀’ (20kg 79포)을 전달하였습니다.

일산동구 성석동 소재 밝은 아침 간호센터 등 6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배철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직접 쌀을 전

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전달한 ‘사랑의 쌀’은 설을 맞아 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자원봉사단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이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우리사회에서 소외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전반에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은 동아리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민원콜센터 방문 직원 격려

-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 당부 -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위원 8명은 지난 3월 4일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시설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날 민원콜센터 방문은 콜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아울러 운영실태,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

습니다.

콜센터 운영시설, 장비 등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및 성과를 설명 들은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8년 7월 민원콜센터를 시범실시한 이후 민원해결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기뻐다'며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민원정보를 시민에게 더 빨리, 정확하고 친절하게 전달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양시 민원콜센터는 전문상담원이 여권, 차량 민원 등 고양시의 모든 민원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 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자전거시설 벤치마킹

- 시 관계 공무원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 모색 -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선재길) 소속의원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경상남도 창원시 자전거 시설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환경적인 문제로 대기환경 개선과 대체 교통수단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고양시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창원시 경륜공단내 자전거 문화센터 견학에 이어 각종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을 로드체킹한 후, 함께 동행한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원들과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쾌적한 환경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타 지자체보다도 제일 앞선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시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였으며, 의회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고양시의회는 제 141회, 제 142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주민과 밀접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기 일정표

회 차	기 간
제 141회 임시회	2009. 2. 12 ~ 2. 16
제 142회 임시회	2009. 3. 10 ~ 3. 20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 부위원장 김경섭 / 위원 김영식, 박규영, 선주만, 임형성, 최근덕, 현정원

지난 2월 5일 열린 14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의회운영의 원활한 행정사무와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고양시의회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과 새해들어 처음열리는 임시회 회

기를 결정하는 「제14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월 3일 열린 14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 개최하는 「임시회 일정(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 부위원장 최근덕 / 위원 김필레, 신희곤, 손대순, 이종구, 이택기, 최국진

제 141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세의 과세감면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

한 것입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세목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로 구체화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했습니다. 「향교재산법」에서 “농지”와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에 재산세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감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142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자가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비롯,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했을 경우 “시의 감사부서”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하여 금품 수수액의 10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안」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계획안입니다. 세부사항은 고양청소년문화센터를 마두동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건, 행신(2) 택지개발지구내에 시립어린이집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행신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고양벽제중로 도로개설건은 국방부 소유의 땅과 사유지를 기부·양여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현재 소유자간 토지 감정평가차액이 크고 향후 주택재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지역민과의 대화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 부위원장 전주만 / 위원 김홍, 이봉운, 이상운, 임형성, 윤용석

제 14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브로맥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의결했습니다.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에서 멀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대상과 수요자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보조금의 신청에서 교부까지의 절차와 감

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만, 취약지역의 정의와 공급관의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지원의 범위를 시설분담금 전액보조에서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공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실무위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했습니다.

「브로맥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시의 핵심전략 유치산업인 방송영상산업 및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브로맥스 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 사업대상지

로 화정동 공용의 청사(시의회)부지가 최적의 부지로 도출되어 향후 시청사 신축시 청사이전 공간 마련(시의회 이전 공간 제공)등이 포함된 브로맥스 타워 건립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 브로맥스 타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며, 현재 브로맥스 킨텍스, 힐사이드, 벨리, 필드 등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시의 재정여건으로 보아도 토지비를 제외한 965억여 원의 막대한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제고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 부위원장 김영식 / 위원 김영복, 나공열, 박규영, 이인호, 이재황, 최명조

제 141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본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객이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문제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또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동에 불편함

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한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검토(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의결했습니다. 고양시 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 또는 공사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개발수익을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역개발론

등으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제142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했습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기업체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도심교통량을 감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 부위원장 현정원 / 위원 길종성, 김경섭, 김경희, 박윤희, 한상환

제 141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리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또한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친환경 장례문화인 자연

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사용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142회 임시회에서는 「고양시 장에

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27-4번지로 변경하고, 보호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하며, 보호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격기

준 및 수탁기간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 부위원장 김경희 / 위원 김영복, 이봉운, 이재황, 이종구, 임형성, 최근덕, 한정원

제 142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입분야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 예산은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공사,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토당 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공사, 장월평천 개수공사, 화현천 정비공사,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등 생활체육 및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8,484억 원에서 323억7,000만 원이 증액된 9,007억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99억4,900만원에서 123억6,2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1,100만 원입니다. 예산총규모는 당초 1조1,483억4,900만원에서

447억3,200만 원이 증액된 1조1,930억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8,684억원이었으나 9,007억7,000만원으로 3.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수침체 및 경기위축에 따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하여 공공근로 및 청년인턴십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인하여 재원변경을 정리하고자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세출예산 요구액 중 보건분야에서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0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승인받고자 요구한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3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심사 시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교육지원 경비와 행사경비 등 일부 예산에 대해 삭감한 바 있으나,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교육경비와 행사경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므로, 향후 집행사항 등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한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은 공공근로 사업,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지원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인턴십 사업 등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사업들과 특히,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체험 예산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경비 등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수범적인 사례로 판단하였습니다.

2009 고양국제꽃박람회



2008 고양꽃전시회 전경



다시 3년 만에 온누리
에 꽃의 향연이 펼쳐진
다. 고양시의 대표 브
랜드가 된 <2009 고양
국제꽃박람회>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
지 18일간 고양시 호수
공원 실내·외 전시장
에서 화려하게 선을 보
인다.

금년도 행사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어
려운 국제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화
훼상품의 개발과 교역
확대에 주력하는 박람
회로 준비된다.

꽃박람회의 의의와 역사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을 통해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나라 화훼산업을 동북아의 중심지로 도약시키
기 위해 매 3년마다 고양시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하는 화훼전문 박람회이다. 올해로 벌써 5회째를 맞이
한다. 이번 행사는 꽃 소비 촉진과 수출계약 등 화훼인들에
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꽃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화훼 트레이드 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고양시는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한국꽃전시회를 발전시
켜 97년 국내 최초로 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3년
에 한번씩은 국제박람회, 나머지 사이 년도에는 국내전시회
를 개최하고 있다. 99년 1월에는 본 박람회에 무역과 경영개
념을 도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전
담팀인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발족시켰으며 실내
3,672㎡, 실외 8,600㎡ 규모의 전시공간을 갖춘 꽃전시관
을 개관하였다.

꽃 전시관에서는 매년 국제꽃박람회와 국내꽃전시회는
물론 선인장 산업전시회, 대한민국 난전시회, 대한민국 명
품공예대전, 호수만화축제 등이 고정적으로 열리고 있다.

2009박람회의 현황과 볼거리

테마전시

장미정원 - 꽃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미 일만 송이로 '사랑'을 표현
구근원 산책길 - 축제의 꽃 튜립 · 알리움 · 아마릴리스 · 프리틸라리아
· 히아신스 등 화려한 꽃으로 장식

선인장관 - 63개의 희귀 선인장과 비모란 선인장 25,000개
역도선수 장미란의 조형물

가족정원 - 토끼 토피어리 · 트럼프 정원 · 빅팻 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주제로 한 이색적이고 아기자기한 오브제

꽃의 성 - 유럽의 아름다운 고성에 온 것처럼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
자연생태관 - 수많은 나비와 희귀곤충, 비단벌레 작품으로 연출

화훼매니아를 위한 전문전시

희귀란 전시관 - 덴파레, 온시디움, 호접란, 반다 등 국내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희귀란 전시

아시아 분재관 - 아시아 8개국의 진귀 분재 32점, 국내 최고 분재작품
야간개장

야간개장은 꽃과 조명, 호수공원의 노을이 어우러지며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이다. 주말 · 공휴일에 한해 개장

문화행사와 이벤트

제10회 한국전통꽃꽂이대상전, 화훼장식기능사자격이 주어지는 제11회
IHK컵 플라워디자인 경기대회, 제3회 모자이크컬처 경진대회, 세계민
속공연, 바디플라워쇼, 댄스 경연대회, 클래식공연, 플라워 퍼레이
드, 플라워 매직쇼, Jazz콘서트 등

국제꽃박람회의 미래비전

그동안 한국꽃전시회는 14회를 개최했으며 국제꽃박람회는 5회째를 맞고, 20여년에 가까운 경험과 노하우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국내는 물론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고양시는 꽃전시회와 국제꽃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꽃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2009고양국제꽃박람회도 최적의 행사장 구성과 공간적 범위 축소로 내실 있게 준비하였다. 무역 마케팅과 비즈니스 확대 방안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보여 주는 박람회를 넘어 우리 꽃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성장할 것이며,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으로 우울한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2008년 행주문화제 어울림 행사

행복이여, 용 솟음쳐라!

제22회 고양행주문화제

일시 : 2009년 5월 2일(토) ~ 5월 5일(화)

장소 : 행주산성, 화중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고양행주문화제'가 봄나들이가 좋은 5월 행주산성과 화중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승전거리행진'은 이전에 비해 보다 웅장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번 축제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조형물들과 함께 행진하는 것도 이번 축제의 색다른 재미가 될 것입니다. 별무리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별무리음악회와 음악불꽃공연, 그리고 행주산성 곳곳에서 진행되는 산성음악회, 줄타기 등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양시

팽창 중심 탈피, 환경 문화 도시로 성장

시시주간 뉴스워크는 [유엔 도시성장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고양시를 일본 후쿠오카, 독일 뮌헨,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과 함께 급성장 하고 있는 가장 활력 넘치는 10대 도시로 선정했다. 이들 도시 외에도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 인도 가자아바드, 프랑스 툴루즈, 중국 난창, 영국 런던, 러시아 모스크바 등을 10대 도시로 꼽았다. 이번 호에는 세계 10대 성장 도시로 선정된 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고양시]의 도시 규모와 산업현황, 주요 시설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고양시 연혁

고양시는 고구려 때 달을성현(達乙省縣/고봉), 개백현(행주, 덕양)으로 불렸다. 신라시대는 한산주라 불렸고 고려시대에는 고봉·덕양·부원·황조현을 합쳐 덕양현(德陽縣)이라 했다. 조선시대 1403년(태종 3) 고봉·덕양을 합쳐 고양현으로 개칭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일산을 비롯한 7개 지역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돼 1992년 2월 군 전역이 시로 승격했다. 1993년 주엽동이 신설됐고 1996년 덕양구와 일산구가 설치됐다. 2005년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분구하면서 지금의 3구 시대를 열었다. 고양시는 정부가 계획한 일산 신도시의 변영으로 지난 10년간 인구가 4배 이상 늘었고 당초 목표였던 베드타운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고양시 일반 현황

고양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한다. 시의 면적은 267.31km²(경기도의 2.6%)로 인구가 35만 3천 세대 93만8000여명(2008년 기준)에 달한다. 도시가 계속 확장되고 있어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구분은 3구 39동이다. 고양시의 예산규모는 1조 1,483억원(일반회계 : 8,684억원 / 특별회계 : 2,79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62.19%에 달한다.



일산 호수공원 전경



고양시는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에 접하고 북동쪽으로 양주군, 북서쪽으로 파주시, 남서쪽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김포시에 접한다.

중심부를 공릉천·창릉천(昌陵川)이 각각 북서·남서 방향으로 흘러 농업용수로 이용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며 연평균기온은 11℃, 1월 평균기온 -4.9℃, 8월 평균기온 25.5℃, 연강수량 1,236mm이다. 특히 7, 8월은 우기로 월 350mm의 강수량을 보인다. 고양시의 꽃은 장미다. 시의 나무로는 백송, 시의 새로 까치가 선정돼 있다. 고양시는 경상북도 울진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고양시 산업

수도권 내 기타 시들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면적이 많아 제조업체의 분포 보다는 주거지역으로의 기능이 특화돼 있다. 주로 벼농사와 낙농업이 중심이었으나 일산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농경지가 택지로 대부분 바뀌었다. 한강유역과 구릉성 산지 등 지형적 조건이 농업에 유리해 식량 생산량도 비교적 많고, 특히 쌀의 질이 좋기로 유명했으나 최근 도시 확장으로 인해 농가 가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식량 생산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 대도시를 소비시장으로 삼아 채소·화초·과수 등이 재배되는 근교농업이 발달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개발유보권역에 속해 있어 공업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나 1994년 1월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정되면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전환됐으며 신도시 개발이 시행돼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근래에는 화훼산업을 육성해 주요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양시 교통 현황

고양시 서부에는 경의선과 자유로가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중앙에는 서울의 교외선인 능의선이 동서로 달린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통일로를 따라 대자리~원당~행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고 의정부시로 직결되는 산업도로와 기타 간선도로가 확장됐다. 또한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뚫려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시·군과 쉽게 연결된다. 자유로는 서울에서 고양시로 연결된 가장 빠른 도시고속화 도로다. 최근 통행량 증가로 제2 자유로가 건설되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고양시를 관통하고 있어 경기도 전역과 원활하게 연결되고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서울시 중심부로부터의 서울 시내버스 노선이 연장돼 있다. 최근에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인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시키는 교통시스템이다. 지하철 3호선이 연결돼 서울과의 연계도 활발하다. 2009년 6월에는 경의선 지하철이 완공돼 더욱 원활한 교통 여건이 구축된다. 경의선 지하철은 서울 중심부(서울역, 마포, 신촌 등)에서 고양시까지 30분 이내로 출퇴근이 가능해진다. 항공 교통도 편리하다. 고양시와 인접한 지역에 김포공항이 있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도 매우 가깝다.

고양시 주요 시설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가 세워져 있다. 킨텍스는 2차 증설을 통해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호텔 등 숙박시설과 테마공원, 문화예술센터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문화단지도 조성되고 있다. 이와함께 일산 대화동에 차이나타운을 비롯해 대형수족관, 한류우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호수공원 내 노래하는 분수대(음향과 빛 500여 가지 분수 연출)를 비롯해 고양 아람누리(2000석 규모의 오페라극장, 1500석 규모의 음악 전용 콘서트홀/정발산역 위치), 고양 어울림누리(1218석의 대공연장, 374석 소공연장, 실내빙상링크, 수영장, 운동장, 야외공연장, 체육관, 공원/덕양구 성사동 위치) 등이 있다. 탄현동 탄현역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59층짜리 주상복합 타운도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 교육, 사회, 문화, 관광

고양향교는 고양시 최초의 교육기관이다. 문봉서원은 1688년(숙종 14)에 세워진 이래 대원군이 철폐령을 내릴 때까지 많은 유생들을 배출해 냈다. 1909년(융희 3) 고양리에 설립된 고양보통학교가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이며 8·15광복 후 많은 학교가 증설됐다. 항공대학교와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2008년 기준 유치원수 46개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76

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28개교, 특수학교 3개교, 시립도서관은 12개관(어린이 전용도서관 3개관)이 있다. 서울에 인접해 있어 서울의 교육기관에 대한 의존도 높아 4년제 종합대학은 없다.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연령층이 가장 많다.

고양시의 주요한 민속놀이로는 농민들의 두레이자 축제인 호미질이 있다. 이 민속놀이는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음력 칠월 칠석을 전후로 벌어지는 놀이다.

호수공원 안에 위치한 꽃전시관에서는 매년 국내 및 국제 규모의 꽃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다. 행주산성 문화제도 매년 개최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고산구곡사화병(국보 237), 소원화개첩(국보 238), 태고사 원증국사탑비(보물 611), 홍국사, 태고사 원증국사탑(보물 749), 행주산성, 벽제관지, 북한산성, 고려공양왕릉, 서오릉, 서삼릉, 송포의 백송, 두루미서식지 등이 있다. 이밖에 행주대첩비, 최영장군묘, 원흥동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밤가시초가, 송강마을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원당종마목장, 농심테마파크, 중남미문화원, 항공우주박물관, 선인장연구소, 선인장전시관,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 일산 로데오의류매장, 라페스타거리, 배다리박물관, 주유테마 동물원, 증권박물관, 민속전시관 등은 관광지로 꼽힌다.

고양시 비전

고양시는 최근 규모의 팽창 일변도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환경도시를 표방하며 환경인프라구축, 관리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고양 Dream 맑은 하천 가꾸기', 공기의 질 개선, 맑고 푸른도시 고양을 향한 꿈 실현 'G2C Plan(Green Culture City Plan)'를 추진해 녹색도시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가로수 식재로 생활 속 공원 조성 등 34개사업에 47억원이 투입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 엄격 제한,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 아이들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깨끗한 거리 조성, 퇴폐 숙박 유흥업소 근절책 등은 자연, 인간, 환경을 모토로 거듭나는 고양시의 새로운 모습이다.



자료참조: 네이버, 고양시청 홈페이지 등
조영준 편집위원 wtn20@wtm21.com

석주 권필 선생 詩碑 제막식



시인과 시비건립위 관계자들이 권필 선생의 시비 제막을 축하하고 있다.

醉時歌(취시가) - 의병장 김덕령(金德齡)

醉時歌此曲無人聞(취시가차곡무인문)
 我不要醉花月(아부요취화월)
 我不要樹功勳(아부요수공훈)
 樹功勳也是浮雲(수공훈야시부운)
 醉花月也是浮雲(취화월야시부운)
 醉時歌此曲無人知(취시가차곡무인지)
 我心只願長儉奉明君(야심지원장검봉명군)

취해서 부르는 노래, 이를 듣는 이 아무도 없네.
 나는 화월(花月)에 취하고 싶지 않고,
 나야 공훈(功勳)도 세우고 싶지 않네.
 공훈을 세운들 뜬 구름이요,
 화월에 취한들 뜬 구름이라.
 취하여 이 한 곡조 부르나 알아 주는 사람 없네.
 내 마음은 다만 장검(長儉)을 잡고 명군(明君)받들기를 원할 뿐.

석주(石洲) 권필의 화답시

將軍昔日把金戈(장군석일파검과)
 壯志中摧奈命何(장지중취내명하)
 地下英靈無限恨(지하영령무한한)
 分明一曲醉時歌(분명일곡취시가)

장군(將軍)은 지난날 쇠창을 잡으셨소.
 장한 뜻 중도에 꺾였으니 그 운명(運命) 어찌하리
 지하영령(地下英靈)의 끝없는 한(恨)은
 분명 이 한 곡조의 취시가(醉時歌)로다.

2008년 자랑스러운 고양인으로 선정된 詩人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시민성금으로 시비 건립

권필의 꿈에 나타난 의병장 김덕령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방년 26세로서 조선(朝鮮) 의병사상 최연소의 명장(名將)으로 등단해 관군과 의병들이 모두 든든하게 여겼던 김덕령(金德齡, 1567~1596) 장군.

그가 젊었을 때 함께 공부했던 이중에 석주 권필(1569~1612)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무척 다감한 사이였다고 한다. 왜란이 발발하자 광주(光州)의 빼어난 용장 김덕령은 초병장군·익호장군·충왕장군 등으로 불리어 세사에서 비장으로 추앙받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지혜와 용맹을 마음껏 펴보지도 못한 채 1596년 이몽학의 난에 연루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29세의 일기로 『춘산곡』을 남기고 죽은 김덕령이 권필 선생의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恨) 맺힌 노래 《취시가(醉時歌)》를 부르자, 이에 화답하는 시(詩)를 지어 그의 원혼을 달렸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김덕령의 취가(醉歌)라는 말뜻을 그대로 보면 취하여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실, 이런 직접적인 한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세한 내력을 알지 못한다면 단지 표피적인 글 몇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취가의 의미는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에 통한(痛恨)을 한 김덕령 장군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려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韓國)의 한시(漢詩)를 번역해 왔다. 나는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석주 권필을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권필의 시(詩)에는 서늘하게 날이 서 있기 때문이다. 권필은 기백의 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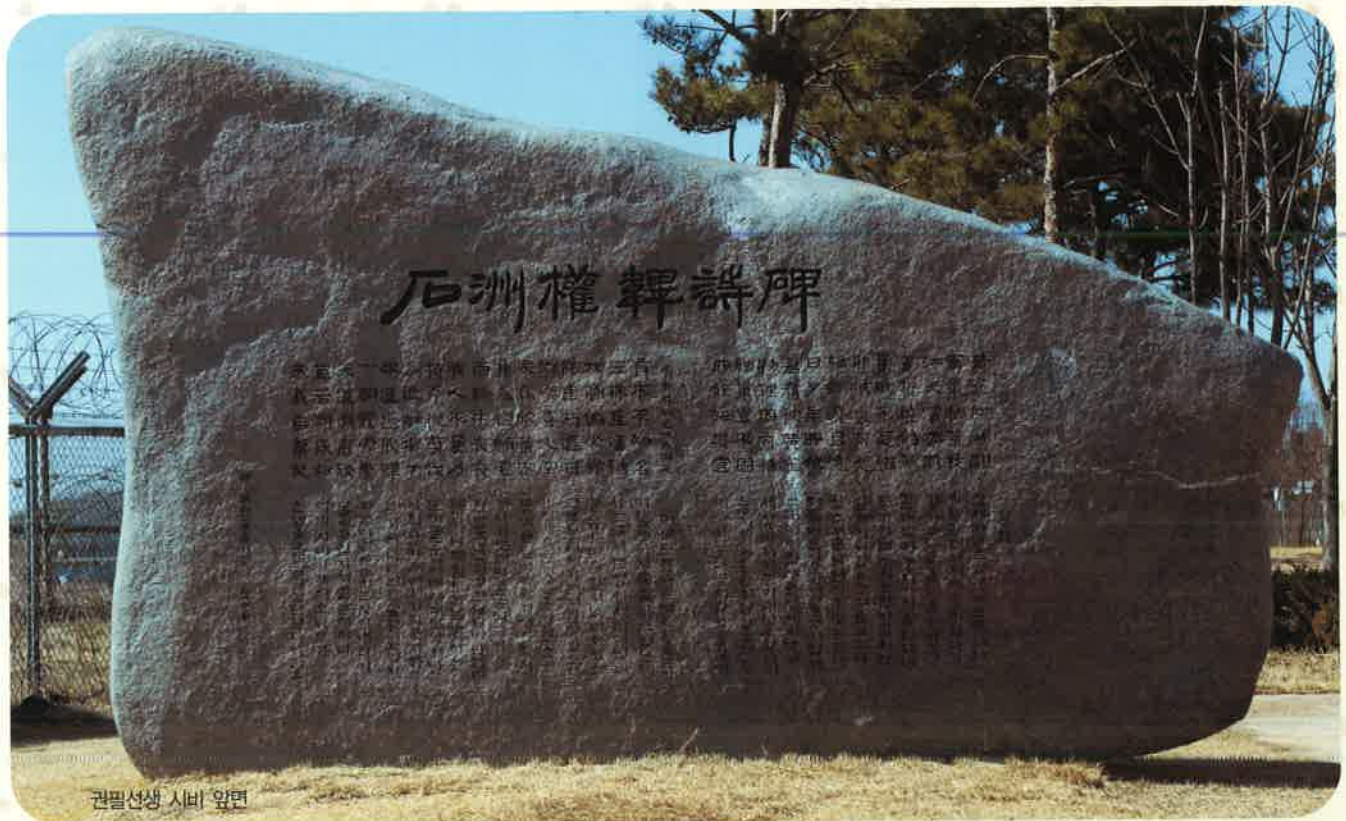
그는 권력지향형이 아니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연군시(戀君詩) 대신 주변의 누추한 생활과 초라한 삶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공감(共感)을 줄 수 있는 시가 된 것이 아닐까.

고양시민의 성금으로 시비(詩碑) 건립

지난 3월 14일 오후 1시 석주(石洲) 권필선생 시비(詩碑) 제막식(除幕式)이 행주산성 선착장공원에서 열렸다.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회장 : 이은만) 주최로 열린 이날 시비 제막식에는 윤용석 고양시의회 부의장, 최국진 고양시의회 의원, 정구상 덕양구청장, 안재성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총괄본부장, 한학수 고양문화원장, 김승배 고양문화원 부원장, 이세준 고양향교 전교, 이윤옥 한국외대 교수, 성기철 전 주엽고 교장, 이영아 고양신문 사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회장, 최종복 고양문인협회 회장, 선호술 공양왕릉제전위원장 등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비건립위원회 이은만 위원장(68, 前 고양문화원장)은 “고양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순수한 시민성금으로 석주 권





권필선생 시비 앞면

필 선생의 시비를 건립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시비건립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고양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필 선생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자는 여장(汝章), 호는 석주(石洲)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송강 정철(鄭澈)의 문인. 벼슬에 뜻이 없어 시(詩)와 술로 낙을 삼고 가난하게 살다가 여러 문인들의 추천으로 제술관(製述官)·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임명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동몽교관’이라는 벼슬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은 직책이다. 종9품이니, 조선의 벼슬 중에서는 가장 말단이다. 큰 뜻을 품고 학문(學文)에 정진하던 사람이 세상의 횡포에 꺾여 재야에 은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찌했을까.

그 이면에는 붉은 먼지 가득한 세속을 벗어나 자신만의 고고한 정신세계를 지키면서 견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었으리라.

한 편의 시로 죽음도 불사한 반골(反骨)시인

권필은 올곧은 선비의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벼슬보다는 학문과 문학을 원한 사람이었다. 그는 욕심 없는 지성인(知性人)의 생애를 살았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인 지

성(知性)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사람이다.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 안재성 총괄본부장(50, 문화관광해설사)은 “2008년 자랑스러운 고양인으로 선정되었던 권필 선생은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생업으로 살았던 선비”였으며, “명리를 멀리하고 평생 학문에만 전념했던 지식인”이라고 말했다.

권필은 부귀영화보다는 세상의 목탁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 실천했다. 그는 힘보다는 바른 것이 더 중요했다.

그러나 현실은 광해군의 왕비인 유씨(柳氏)와 그의 동생 유희분(柳希奮) 등 척리(戚吏)들이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했다. 그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매관매직 등으로 국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권필에게 용납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피가 끓어오르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했다. 희망했다. 그러나 자신은 임금과 신하들을 충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는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궁류시》를 짓게 된다. 이에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된 조수륜(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연좌되어 해남으로 귀양을 가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권필이 귀양지로 가는 길에 수많은 백성들이 권필을 동정하여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한다.

권필은 그들이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시고, 다음날 급사하고 만다. 《궁류시》는 권필이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한 시로서 한 문인(文人)이 당한 필화(筆禍)사건이다. 조물주가 권필을 희생양으로 택한 것일까. 그는 현실 정치에서 모순과 불합리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속에서 폭력적 정치집단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상징적 힘으로 오늘날까지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치집단은 죽었지만 권필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강한 이름으로……

조선 중기 최고의 문장가, 권필

그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시인(詩人)이었다. 저서로 『석주집(石洲集)』과 한문소설 『주생전(周生傳)』이 전하고 있다.

열아홉 살에 초시(初試)와 복시에서 연거푸 장원 급제를 했지만, 답안지에 글자 하나를 잘못 썼다는 이유 때문에 과거 합격이 취소된다. 뛰어난 인재가 글자 하나 빼앗히는 바람에 청운의 꿈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 일은 권필 평생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다. 다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전국을 휩쓸었으니 생활이 어디 넉넉했을까만, 벼슬을 한사코 마다하고 야인(野人)으로 지내는 선비로서 가족을 무사히 건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권필이 친구들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다. 1610년 무렵, 허균(許筠, 1569~1618)은 친구인 조위한(趙緯韓, 1567~1649)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쓴다.

“판서(判書)를 뵈었더니 동몽교관 벼슬로 여장(女章)을 굴복시키고 싶어 하시더군요. 그가 벼슬길에 나올까요? 형께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절친한 사이였던 허균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권필의 심사를 어찌 짐작하지 못했겠는가. 그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권필에게 직접 물어 보지 못하고, 벗인 조위한에게 은근히 물어 보라고 권했던 것이다.

하찮은 벼슬 때문에 평생의 뜻을 버리지 않으려는 벗을 위해, ‘벼슬이란 때론 가난 때문에 하기도 하는 법’이라며 짐짓 이유를 만들어 보이는 허균의 말에서 둘 사이의 절친한 우정(友情)이 묻어 나온다. 벗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두

려워 직접 물어 보지 못하고 조위한에게 물어 봐 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이 여간 고운 게 아니다.

허균의 편지에 언급된 판서는 당대의 문장가이면서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내고 있던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이다. 원래 동몽교관에 임명되면 아무리 낮은 관직이지만 관복을 입고 예조(禮曹)로 가서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러나 권필은 약간의 곡식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것은 내 본뜻이 아니라면서 결국 벼슬을 거부한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글을 배웠는데, 그 학생들을 먹일만큼 권필의 집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에 제자들이 몸소 일을 하고 나무도 하며 밥을 지어 먹었는데, 아무도 싫어하는 빛이 없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돈, 경제적인 척도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 권필의 삶은 우원(迂遠)한 느낌을 준다. 절박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지키려는 자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리라.

또한 주변의 벗들이 그 뜻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의 가난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까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우정의 도리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런 진정한 벗들이 있어 시인 권필의 삶이 더욱 빛나는 건 아닐까.

송승환 편집위원

fnnews21@naver.com



권필선생 시비 뒷면

2009 PHOTO STORY



고양 새해맞이 축제 참가 (1.1)



시무식 후 시장과의 면담 (1.2)



의장단 현충탑 참배 (1.2)



관내 기독교 중등부 학생회 의회 견학 (2.2)



대한적십자사 임원들과 환담 (2.4)



킨텍스 고양시 공예 전시관 개관식 참석 (2.17)



기획행정위원회의원 공유재산 취득관련 현장 방문 (3.4)



환경경제위원회의원 고양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참석 (3.16)

독보적 역사의식...

“순국선열 명예선양은 지금 요구되는 시대정신”

인권 · 평화 · 미래를 생각하는 실천가

이철민 前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장

어느덧 광복(光復) 64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름 모를 산하에서 장렬히 산화(散花)하신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愛國)·애족정신(愛族精神)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성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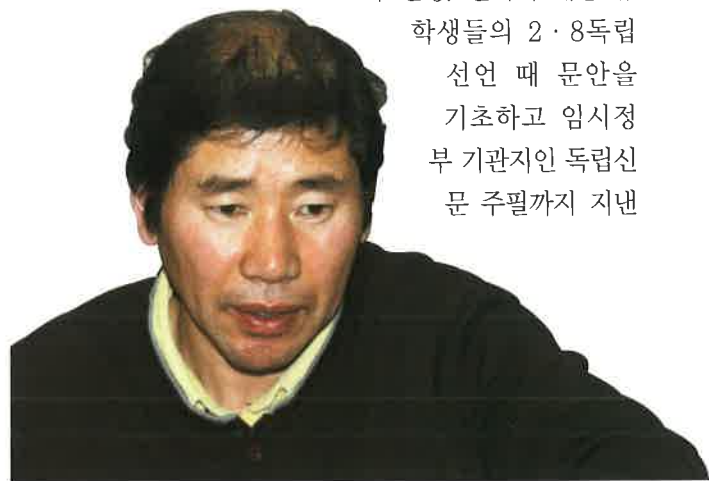
이러한 때, 고양(高陽)에서 독보적 역사의식으로 민족정기 선양(宣揚)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철민(47) 전(前)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장을 만났다.

요즘 그는 “한 독립운동가의 묘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한 골프장. 약 85만 9508㎡ 크기의 골프장 가운데 독립운동가 김승학(金承學, 1881~1964) 선생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다. 후손들이나 참배객들이 한 번이라도 묘소를 찾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를 골프공의 위협을 감수해야 할 정도다.

1910년 만주로 건너가 항일무장운동을 펼친 뒤 1921년 3월에는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1892~1950)의 변절로 정간(停刊)됐던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복간(復刊)한 김승

학 선생. 일찍이 제일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때 문안을 기초하고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 주필까지 지낸



이광수의 변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함께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 주었다. 그는 자신의 친일 행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내가 조선신궁에 가서 절하고 카야마 미쓰로로 이름을 고친 날 나는 벌써 궤절한 사람이었다. 전쟁 중에 내가 천황을 부르고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른 것은 일시 조선 민족에 내릴 듯한 화단을 조금이라도 돌리고자 한 것이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 있어 움직인 것이지만, 이제 민족이 일본의 기반을 벗은 이상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의 고백”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매우 모호한 논리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가 뼈저리게 자신의 친일행위에 대해 반성했던 것 같지는 않다.

김승학 선생은 오늘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무국의 장관격인 학부총장 권한대행과 의정원 의원(현재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임시정부 요인이다. 김 선생은 해방 뒤 제대로 친일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며 독립투쟁사인 『한국독립사(韓國獨立史)』를 남겼다. 그는 당시 반민특위 활동과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지난 2001년에는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선정하는 7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독립운동가 김승학 선생 묘지이전 추진

김 선생은 작고하기 전 유언을 통해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고, 후손들은 그 유지(有志)를 받들어 당시 국가보훈처 소유의 땅이던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8-4 서삼릉(西三陵, 사적 제200호)에 묘지를 만들게 됐다. 그러나 1970년대 서삼릉 일대의 골프장과 종마목장 등이 들어서면서

민족정기 선양운동 한길

선생의 묘지가 골프장 한가운데 둘러싸이게 된 것.

김승학 선생의 손자 김병기(역사학자) 씨는 “아무쪼록 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조그만 땅이라도 얻어 이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독립운동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이라면 이전을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김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싶은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바람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철민 씨는 “쉽사리 일반인들이 발걸음을 하기 힘든 골프장에 묘지가 있는데다 안내표지도 없어 누구도 찾아오기 힘든 실정”이라며, “관계기관들이 계속 떠넘기기만 하지 말고 묘지 이전에 힘을 써줘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시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참의미를 일깨워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철민 씨를 인터뷰하면서 고양에서 많은 분들이 민족정기 선양운동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철민 씨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가 왕성한 활동을 통해 고양시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고,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명예선양과 예우풍토 조성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승환 편집위원 fnnews21@naver.com



이철민 전 지부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민족문제연구소 고양지부회원들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141회, 제14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12건, 의견청취 3건, 기타 2건 등 총 1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들 안건 중 시민이 알아야 할 안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심사대상 사업금액을 “3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조정하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제도를 신설
-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개최일 10일전”을 “개최일 7일전”으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실시하되 하반기는 “10월15일”을 “10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실시.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세의 과세감면에 대한 대상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는 사항으로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세목을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로 구체화함.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향교재산법」에서 “농지”와 “85㎡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 감면하는 사항을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에 재산세 분리과세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한하여만 감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함.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사항으로

· 공직자(시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 등)가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비롯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시의 감사부서”로 신고하면 심사를 통하여 금품 수수 액의 10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신고된 사항 가운데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정된 경우와 이미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사항, 기타 언론보도 등으로 공개되어 조사 중인 경우는 보상에

서 제외(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도록 함.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도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던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지역 시민에게 연료비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중 수요자 분담금을 지원.

- 도시가스 공급과 설치 사업지원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함.
-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 신청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감독 사항을 규정함.
- 취약지역의 정의와 공급관의 정의, 지원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하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실무적, 실질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강화하여 수정가결.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유통산업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이용고객이 주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을 “비영리 공인법인 및 시에서 공인하는 보훈·장애인·봉사단체”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변경함.
- 노상주차장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의 200%를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간시간에 한하여 적용

하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안)

-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고양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교통안전법」의 제도적 미비 등으로 교통안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안건처리 현황

-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과 상 위법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세분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우리시의 “생활밀착형 에코-바이크 시스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 자전거 운영규정을 마련.
- 자전거 보험규정을 두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자 출·퇴근 수당의 근거 규정을 마련.
-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추진근거 규정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해 의무화된 강제 조항 중,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조항들은 완화하고, 위원회 활성화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리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기업체의 참여확대 유도 및 새로운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도심교통량을 감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확대를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및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등에 대하여 이행기준과 경감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에서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결정통보서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서 신설되는 이행기준 및 경감율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적용하도록 함.

문 화 복 지 위 원 회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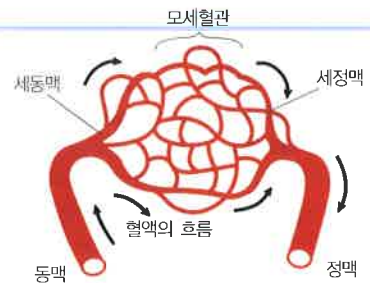
- 매장 위주 장례문화의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 장례문화인 자연장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사시설 확충 시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 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사용 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경과 후 조치사항 등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혈액 순환이 건강을 결정한다

우리 몸속의 혈액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방출되어 대동맥,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등 약 10Km의 크고 작은 혈관을 통해서 온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처럼 복잡한 흐름 속에서 미세한 부분이라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상적인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맑고 깨끗한 혈액의 흐름은 곧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근본이라 할 것이다.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건강 요법

1. 냉·온욕

냉수(15~20도) 온수(40~42도)에서 냉욕-온욕-냉욕-온욕의 순서로 각 1분씩 7~9회 반복한다.

마지막 온욕은 3분에서 5분이 적당하지만 10분 정도 길게 한 후에 마무리를 10초정도 냉욕으로 끝내는 것이 혈액 순환 촉진에 최상의 방법이다.

냉·온욕은 땀을 흘리지 않는 목욕방법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몸 안의 염분이나 비타민C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냉·온욕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목욕 후에도 나른하거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

냉·온 욱을 샤워로 할 때는, 발끝-무릎위-복부-좌,우 어깨 순으로 각 3초씩 2회 반복한다.

냉·온 욱은 아침이나 저녁시간이 효과적이다.

※ 주의 사항

중증고혈압, 심장병, 만성신부전증, 몸에 열이 있을 때, 약 물을 복용할 때, 만취상태에서는 삼가해야 한다.

2. 풍욕

풍욕이란 말 그대로 바람을 이용한 목욕이다. 프랑스의 의학자 로브리 박사의 연구에 의해서 착안되었다고 해서 로브리 요법 또는 대기 요법이라고도 한다.

풍욕은 실내에서 옷을 벗고 창문을 열기와, 옷을 입고 창문을 닫기를 교체 반복하여 3~5회 계속한다.

옷을 벗을 때는 가능하면 전신을 노출시켜 공기에 부딪힌 피부가 최대한 수축되도록 한다. 옷을 입었을 때는 최대한 두꺼운 옷이나 모포 등을 덮고 체온을 높여 피부의 이완을 돕는다.

피부가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들여마실 수 있도록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므로써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피부호흡을 통해서 공기 속의 산소와 질소를 받아들여 체내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킨다.

풍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쾌청한 날씨에 푸른 숲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조자료 : 혈액의 모든 것 (출판사 살림Life)
김영기 편집위원 wjykim@daum.net

풍욕요법 실행 방법



방의 창문을 모두 열고
옷을 다 벗는다.



방의 창문을 모두 닫고
담요 등으로 감싼다.

다음의 표와 같이 착의와 탈의를 반복한다. 옷을 벗고 있는 시간은 점차 늘려간다.

순서	방을 개방하고 탈의(초)	방문을 모두 닫고 착의(초)
1	20	60
2	30	60
3	40	60
4	50	60
5	60	90
6	70	90
7	80	90
8	90	120
9	100	120
10	110	120
11	120	옷을 입은 채로 잠시 휴식을 취한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절망 속에 찾은 희망의 디딤돌

고양시, 장기불황 속 복지사각지대 놓인 차상위계층 찾아 선지원 후심사로 250가구 자활 돕기

경기불황의 골이 깊다. 계절의 이행은 봄이나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춥고 팍팍하다. 본인 명의의 중고자동차가 한 대 있거나 병든 몸이라도 근로가능연령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고 숨 막히는 고통의 바다이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고양시가 경기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은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연두빛 새순처럼 인고의 시간을 헤쳐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의 몸짓에 한줄기 봄바람이 되고 있다. 시행 5개월을 지나고 있는 고양시의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살펴본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란 무엇인가요?

2008년 11월부터 고양시와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자격 요건이 안 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과 아동, 노인, 장애인, 장기환자 등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생계비 없어 단 한명이라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 없어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시기를 놓쳐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정으로 가정이 해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체가정의 아동, 노인, 장애인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는 무한돌봄 미션은 이 사업에 담긴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고양시의 무한돌봄사업은 고양시가 60%, 경기도가 40%의 비율로 예산을 매칭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마다 감당해야 하는 예산의 비율이 다르다. 고양시는 2009년 무한돌봄사업으로 25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16일 현재까지 2억4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약 250가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자활의지를 다지고 있다.

위기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도의 의지’가 담긴 사업명칭인 ‘무한돌봄’은 그러나 말 그대로의 ‘무한정’ 돌봄은 아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인만큼 무한돌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정은 통상 4개월 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을 받게 된다. 장기화되는 불황 속에서 생계타전을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절박함을 다 해소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자활의지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원칙은 ‘선지원 후심사’로서 신고 후 실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기초조사, 3일 이내에는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인 만큼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이다. 실제로 위기가정에 대한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 결정된 건의 97%가 3일 이내 이루어져 신속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상가정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지역사회 보건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삶의 터전을 뿌리째 뽑히고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에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절망 속에서 찾은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 및 인력시스템의 보강이 급선무일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무한돌봄사업 담당 행정인턴사원을 각 동에 1명씩 배정하고, 통장 974명을 ‘무한돌봄미’로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복지위원 등 일선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무한돌봄사업을 홍보하고 사례를 발굴, 위기가정이 신속히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의 가정으로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가정해제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 / 21만 8천원, 2인 / 37만 천원, 3인 / 47만 9천원
4인 / 58만 8천원



- 의료비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도립의료원 치료관리)
- 주거지원 : 1-2인/29만 6천원, 3-4인/49만 3천원
5-6인/65만 천원
- 교육지원 :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인 / 40만 6천원, 2인 / 69만 5천원
3인 / 90만 천원, 4인 / 110만 5천원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6만 8천원, 해산비 50만 천원
장제비 50만 천원, 전기요금 50만 천원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29세, 여)는 3개월 전 배우자가 가출한 후 두 딸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정세대로 현재 3개월된 둘째딸이 미숙아로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그동안 본인은 간호사로 일을 하고 남편은 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잘 살아왔으나, 둘째딸이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간병과 양육문제로 병원 일도 그만두게 되고 남편도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을 하게 되면서 생활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졌다. 재산은 8년된 자동차 1대와 월세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이다. 배우자의 가출과 자녀의 건강문제로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고, 월세금이 높아 몇 달간의 월세금이 체납되어 보증금에서 상계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거상황이 불안정하였다. 이모 씨는 인터넷을 통해 ‘무한돌봄사업’을 알게 되었으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무한돌봄을 신청했다. 무한돌봄에서 생계비 및 연료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월세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향후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이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 하루하루가 막막하던 이 씨는 무한돌봄을 통해 절박한 순간을 넘기고 두 자녀와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100일간의 이야기』 / 경기도)

- ▶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 무한돌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을 알고 계신 분들이 시·군 복지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에 신고
- ▶ 진행절차
 - ① 동주민센터: 사례 접수 및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② 해당구청: 서류검토 후 시청(무한돌봄센터)에 대상자 선정 요청 ⇨ ③ 시청(무한돌봄센터): 필요성 인정 ⇨ ④ 해당구청: 우선지원 실시 ⇨ ⑤ 소득, 재산 조사 ⇨ ⑥ 지원의 적정성 심의

김지량 편집위원
editor1210@naver.com

고양시 가족여성과

“우리 시의 결식아동은 우리 시민이 돕자”



경제가 어렵다보니 하루 세끼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고양시의 굶는 아동 실태를 점검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고양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우리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우선적으로 먹거리가 해결되어야 공부도,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창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다.

그래서 정부는 2000년부터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저녁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며, 18세 이상인 경우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포함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을 통보한다)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학교 교사 · 민간 사회복지사 · 이장 · 통장 · 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다.

아동급식지원은 2005년부터 도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경제악화에 따른 결식아동 급증으로 정부

차원에서 한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현재 급식지원은 방학과 토, 공휴일에는 점심식사가 제공되며, 학기 중 평일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1~3식, 취학 아동은 1~2식을 지원하고 있다. 취학 아동의 경우 1식이 적은 까닭은 점심을 학교 급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급식비는 1식당 3천5백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시설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시설에서는 제공된 급식비를 관할 구청에 청구하게 된다. 그 외의 급식대상아동에게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한번씩 한달치 급식권을 해당 아동에게 전달한다. 해당 아동은 지원받은 급식권을 가지고 관내 지정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

고양시에서 급식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 2월 현재 6,328명으로 구별로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고양시 구별 결식아동 인원〉

구	계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인원	6,328명	2639명	1982명	1707명

급식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급식소인 지역아동센터에서 1,265명, 일반음식점에서 5,025명, 일반음식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수퍼마켓 등에서 급식권을 가지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숫자는 38명이다.

〈2009년 고양시 급식 지원 현황〉 (2009년 2월 현재)

급식 지원인원	단체급식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식품권	기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6,328명	1,265명		5,025명		38명	

지원받지 못한 아동은 동주민센터로 문의

고양시 가족여성과 아동위스타트팀의 결식아동담당자는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이 제도를 고마워하는 편”이지만 “일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지정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현금 대신 급식권을 내는 것에 대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여 창피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

결식아동 지원 초창기부터 이 업무를 맡아온 담당자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급식대상 조사 기관 및 조사표가 이원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되어 있어 급식지원 대상 조사가 일관성이 없고, 지원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3천5백원으로는 1식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결식아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고양시의 일반음식점은 123곳이다. 이 음식점들은 고양시와 상호 협약에 의해 음식점의 식사를 급식권 1장, 즉 3천5백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더러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6천원 짜리 식사인 경우, 음식점에서는 해당 아동에게 급식권 2장을 받고, 나머지 차액 1천원은 다음번에 사

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결식아동의 경우 3천5백원으로 한끼를 해결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해결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음식점이 봉사 차원에서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양시의 결식아동은 다른 시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지만 고양 시민들은 우리 시의 결식아동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서로 조금씩 도움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만약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싶은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덕양구는 여성복지팀, 일산동·서구는 가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주변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을 경우 각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사회복지사가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김미정 편집위원

mj-nh-cy@hanmail.net



클래식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 연주회

피아니스트 박서현과 멘델스존 협주곡 연주



지휘자 서희태.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음악감독으로 유명하다. 그가 이끄는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오는 4월 11일 오후 5시 아람음악당에서 열린다. 서희태는 드라마에서 지휘자 강마에 역을 맡았던 탤런트 김명민에게 지휘를 가르쳤고 드라마 전체 음악감독을 맡았었다. 드라마 방영 이후 클래식 붐을 일으키며 지난 연초

부터 전국투어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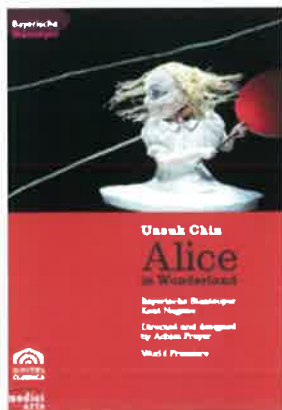
'베토벤 바이러스'인 라이브'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회 공연 모두 매진시켰고, 경기도문화의 전당, 광주문화예술회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김해문화의 전당, 부산 KBS홀, 대구 계명아트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춘천백령문화관 등에서 많은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의 감동을 이끌어냈다. 불행히도 고양에서는 공연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에는 정기연주회로 고양을 찾는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특별히 올해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멘델스존의 음악들로 프로그램을 짰다.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연주하는 젊은 피아니스트 박서현은 연세대 음대와 맨하튼음대를 졸업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연주를 가졌다.

공연정보

2009년 4월 11일 오후 5시 / 아람음악당
문의 019-367-1663

D V D 진은숙오페라 '이상한 나라 앨리스' 출시



2007년 독일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 개막작품으로 초연되었던 진은숙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DVD로 출시됐다. 쾨트 나가노가 지휘한 바이에른 국립오페라극장 연주로 성악가로는 샬리 매튜스(앨리스), 귀네스 존스(하트의 여왕), 디트리히 헨셜(미친 모자장수), 줄리아 램페(체셔 고양이), 앤드류 와츠(3월의 토끼) 등이 출연했다. 루이스 캐럴의 원작을 데이비드 헨리 황이 대본을 쓰고 연출은 아힘 프라이어가 맡았다.

작품 구성은 원작의 유머러스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 대신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를 상기시키는 그로테스크함이 부각된다. 45도로 기울어진 무대 전면의 검은 판자에는 9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이 사이로 출연자들이 오가며 노래하고 연기한다. 앨리스는 거대한 가면을 쓴 채 환상 또는 악몽같은 세계를 탐험한다. 이 오페라는 개막부터 현대 오페라계의 화제를 몰고 왔다. 진은숙은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이며 윤이상 이후 한국인으로는 가장 주목받는 현대음악 작곡가다.

DVD제원

EKDV-024 / 러닝타임 : 123분 / 자막 :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 오디오 : 콘서트 PCM 스테레오, DD 5.1, DTS 5.1

포커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2007년 연극 '친정엄마'로 대학로 관객들의 마음과 발길을 동시에 사로잡았던 작가 고혜정과 연출가 구태환이 다시 만나 화제를 모은 작품. 오는 5월 23일과 24일 어울림극장에서 상연되는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극을 통해 여성들의 속내를 잘 담아내는 고혜정 작가 특유의 감성과 따스함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딸 미란은 어느날 연락없이 시골에 있는 친정집을 방문한다. 모두들 타지로 떠나고 아버지도 없는 친정집에는 엄마 혼자 쓸쓸히 전기장판에 따뜻함을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 혼자서는 밥도 잘 차려먹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궁상맞고 속상해 화를 내고, 엄마는 연락없이 내려온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만 같아 속상하기만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서로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엄마와 딸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아프기만하다. 오랫동안 본 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눈치챈 친정엄마는 점차 다가올 이별의 시간을 직감하게 되는데... 중진 탤런트 강부자, 이용이, 전미선, 이서림 등이 열연한다.

공연정보 5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 24일 일요일 오후 2시 / 어울림극장 / 문의 1688-6675

BOOK 세상에서 가장 쉬운 연필 스케치



20여 년간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미술 선생님이 알려주는 참 쉬운 스케치 노하우. 어려운 미술 전문용어 대신 일상용어를 사용하여 스케치의 기초 및 응용 기법을 친절하게 설명했으며, 인물·풍경·정물·동물 등 30개의 다양한 예제그림을 수록하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배운 대로 책에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림 그리기가 미술 전공자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저자가 알려주는 몇 가지 기본 테크닉과 노하우만 알면 누구나, 생각보다 쉽게,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종이 위에 옮길 수 있다. 연필 잡는 법부터 다양한 선 굵기 연습, 명암·원근감·구도를 표현하는 법, 대상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리는 법 등 실전에 필요한 모든 스케치 노하우가 이 책 한 권에 모두 들어있다.

책정보 이승엽 지음 / 미디어월M&B / 119쪽 / 국배판

배석호 편집위원 / cdgu@paran.com

고양, 한국의 화원을 꿈꾸다

청춘의 도시, 꽃처럼 피어나리

몇 년 전 일이다. 호수공원 길 건너편에서 가던 발길을 멈추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찬탄을 금치 못하는 한 외국인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통행하던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구름 사이 저녁놀이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붉은 황금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정경이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었다. 생활이란 무엇일까. 그저 '살아있음'만을 뜻하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 생활이란 실로 음미할 향기, 음미할 깊은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보람있게 멋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못하다. 밤하늘의 별을 헤어본지도 너무너무 오래 되었고, 도시의 거리를 헤매다보면 어느새 머리칼에 끼어든 먼지처럼,

혹은 바지 끝에 묻은 먼지처럼 살고 있는 일상이 돼버렸다. 여기 이런 시가 있다.

나,

이런 길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길을 손잡고 가고 싶은 사람 있네.

먼지 한톨 소음 한점 없어 보이는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나도 그도 정갈한 영혼을 지닐 것 같아

이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처럼

이 길을 오고 가는 자동차의 탄력처럼

나 아직도 갈 곳이 있고 가서 씨 뿌릴 여유가 있어...

-박라연 <너에게 세 들어 사는 동안>(문학과 지성사 1996, 일부)



네덜란드 치위트홀란트주 케ukenhof(Keukenhof) 꽃축제



Art in City

고양의 봄은 벌써 시작됐다. 봄이 오는 동안 고양엔 꽃들도 함께 온다. 꽃은 주인이 없고 누구나 보는 사람이 임자다. 꽃은 순간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꽃을 보는 것은 그 속에서 청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청춘은 있고 청춘 역시 임자가 없다. 청춘이 아름답듯 꽃도 아름답다.

꽃이 있는 도시가 청춘의 도시다. 올해는 고양 국제꽃박람회(4.23~5.10)가 있는 해다. 외국 24개 나라에서 110개 업체가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154개 업체가 참가한다고 하니 매우 글로벌한 꽃의 사교센터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한 것도 좋고 숫자적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고양인(人)들은 들뜨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고 실속있는 페어(Fair)가 되길 소망한다.

고양, 한국의 화원을 꿈꾸다

잠시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를 들여다보자.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남서쪽으로 약 35킬로미터 떨어진 자위트홀란트주 쾨켄호프(Keukenhof)에서도 매년 꽃축제가 열린다. 꽃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꽃축제인 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8만5천여 평 규모의 꽃밭에서 매년 3월 하순부터 5월 중순까지 열리는 이 꽃축제의 주인공은 튤립. 튤립과 함께 구근화훼류인 수선화 히아신스 칸나 무스카리 등 4천종 6백만 그루의 꽃이 망울을 터뜨린다. 봄이 시작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고 싶어하는 곳도 쾨켄호프다. 쾨켄호프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면 유럽에 봄이 찾아온 것이라고까지 해 '유럽의 봄'(Spring of Europe)이라 불린다. 네덜란드의 베아트릭제 여왕은 지난 3월 18일 새로운 품종의 튤립에 '스프링 가든'이라고 명명하는 것으로 제60회 쾨켄호프 꽃축제 개막을 선언했다. 회년을 맞이한 이번 꽃축제의 주제는 '미국, 뉴 암스테르담: 뉴욕400'이다.

이 주제의 의미는 뭘까?

400년 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탐험가였던 헨리 허드슨과 미국을 매치시킨 것이다. 1609년 허드슨은 미국 맨해튼에 상륙하여 뉴 암스테르담을 세웠고 그 후 오늘날의 뉴욕이 되었다. 쾨켄호프 꽃 축제장은 허드슨 강에서 시작되는 미국 테마루트를 디자인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청포도꽃 길은 뉴욕의 두 지류를 예시하며 입장객들을 브루클린, 할렘, 월스트리트 같이 알아볼 수 있는 뉴욕의 여러 명소들로 안내해준다. 쾨켄호프 꽃축제는 연간 1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중 10퍼센트가 미국인들이라고 한다.

쾨켄호프 꽃축제는 타겟을 확실히 정하고 주제를 구체화시켜 관람객 유치에 반영했다. 일례로 작년(2008년)에는 주제가 '중국-올림픽-베이징'이었다. 조직위원회는 선명하고 명료한 주제

를 가지고 중국거리의 생활과 올림픽전시회 사진들을 공개했다. 그 결과 중국인 관광객을 수만명 끌어들이었다.

이쯤에서 4월 23일부터 열리는 우리 도시의 꽃축제 주제를 찾아봤다. '온누리 꽃누리'다. 주제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우리나라 축제들이 대개 그러하듯 한 마디로 타겟이 없다. 타겟이 없으면 정체성을 잃는다.

고양에서 1997년 시작되어 3년마다 열리는 국제꽃박람회, 그리고 꽃박람회가 열리지 않는 해에 열리는 고양꽃전시회 때문에 꽃은 고양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봄의 꽃축제는 고양시의 전유물이 아니다. 광주 봄꽃박람회, 용인 에버랜드 플라워 카니발, 광양매화문화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진해군항제, 해남 할미꽃 봄나들이,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 안면도 꽃박람회, 함양 플로리아 페스티벌, 제주 왕벚꽃축제, 금산 산벚꽃축제, 제주 유채꽃잔치, 신안 튤립축제, 장흥 철쭉제,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등등. 얼핏 생각나는 것만 열거해도 한국의 봄은 꽃놀이의 봄이 아닌가 싶다.

고양이 꽃의 도시가 되려면, 현재 3년 주기로 열리는 국제꽃박람회를 매년 열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통계는 그리 중요치 않다. 몇 명이 입장했고, 계약고가 얼마고, 몇 개 나라에서 몇 개 업체가 왔고..., 고양시민들은 이런 데 관심 없다. 쾨켄호프에 베아트릭제 여왕이 직접 등장하여 새로운 품종의 튤립에 '스프링 가든'이란 이름을 붙여줬듯, 고양의 화훼연구자들에 의해 업그레이드된 선인장을 대통령이 직접 이름 붙여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지역축제를 탈피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꽃 외교를 벌여야 한다. 쾨켄호프엔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명사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아주 예쁘고 예술적인 포스터를 만들어 서울과 부산, 제주, 광주, 파주 그리고 인천공항 등의 소박한 식당이나 호텔 등에 붙여 놓으면 좋겠지.

배석호 편집위원 / cdgu@paran.com



잊혀졌던 전통가마를 현대에 되살리다

전통가마공예가 이강연 씨



고양시에 옛 가마를 만드는 분이 계신다는 제보를 듣고 물어 물어 이강연 선생의 작업장을 찾아 갔다. 국도변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그 주인공, 이강연(58세) 선생을 만났다. 작업장 안에는 장롱, 가마, 버선장같은 나무로 된 가구며 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다. 완성된 가마 좀 볼 수 없겠느냐고 하니 삼송리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다가 화재로 모든 자료와 작품을 잃어 남은 것이 몇 점 없다고 했다. 작품을 잃어서 아깝겠다고 하니 이강연 선생은 물건보다는 평생 모은 자료가 없어진 것이 더 아깝다고 했다.

고가구에 매료되다

“전통문양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만지던 반닫이나 이층장, 전주장 같은 물건들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고가구의 향기도 좋았어요.”

젊은 시절 가구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가구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가구회사에서 만들었던 우람하고 거창한 가구들도 제가 원하는 가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가구는 품위 있으면서도 서민적이고 포근한 가구였어요. 가구 주인들이 늘 매만져 손때 묻은 그런 가구였지요. 생각해 보니 조선시대의 가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꿈꾸는 가구를 만들기 위해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아현동 고가구 공방을 드나들며 조각쟁이 생활을 시작했다. 옛날 가구를 선생으로 삼아 가구에 문양과 그림을 그리고 새겨 넣는 일을 했다.

고가구를 수리하면서 옛 장인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사대부가의 가구들, 혼례가마, 서민용품, 궁실용품들이 그의 손을 거치면서 새생명을 얻었다.

1983년에는 아현동에서 <태고당>이라는 고가구점을 열고 고가구를 판매도 했지만 주로 복원과 수리를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그 많던 아현동 가구점들이 장안동으로 옮겨 간 이후에도 그는 아현동에 남아 고가구 수리를 계속했다.

옛 가마와 만나다

고가구 수리를 전문으로 하던 이강연 씨가 가마만들기를 시작한 것은 당시 국립극장 극장장이며 연출가였던 허규 선생과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허규 선생은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고양시 출신으로 전통공연기획자로 유명했던 분이다. 허 선생이 태고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다 1988년 어느 날 이강연 선생에게 제안을 했다.

허규 선생이 말한 행사는 오사카의 '사천왕사 왔소'라는 마쓰리였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문물을 전하는 과정을 퍼레이드 형식으로 표현한 이 행사는 신한은행의 모기업인 관서흥운의 이희건 총재가 후원하여 1990년 처음 열린 이래 지금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마쓰리(축제)로 자리잡았다.

가마를 만들어 보겠노라고 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가는 행렬에는 책만 가득 실은 가마, 금은을 실은 가마, 옷감을 실은 가마 등 많은 가마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실물은 커녕 자료조차도 없었다. 삼국시대의 무덤 속 벽화에 나타난 가마의

형태를 참고해 삼국시대의 문양과 건축형태를 고증받아 가며 꼬박 1년 반 동안 가마제작에만 매달렸다. 신라의 금은옥백을 실어 나르는 연, 고구려 국서연, 백제의 황금연, 조선시대의 어연, 세종대왕 주정서, 국서연 등 총 32점의 가마와 수레를 만들었다. 우리나라 가마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되어 현지인들의 찬탄을 받았다.

“가마 만드는 일은 매력이 있어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문헌과 학자들의 조언을 참고로 만들다 보면 보람되고 뿌듯하지요.”

이 일을 계기로 전통 가마에 깊이 매료된 이강연 선생은 그후 궁에서 쓰이던 가교와 봉교 등의 가마와 궁중 생활에 쓰이던 기물을 재현, 제작하게 되었다.

“가마는 복합공예라고 할 수 있어요. 나무, 금속, 칠 등을 비롯해 건축양식까지 모두 익혀야 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가마를 재현하기 위해 그는 문헌과 사진자료, 그림 등을 참고해 복원작업을 한다. 수원 화성행궁의 정조대왕 유물재현에 참가해 왕이 타고 다니던 가마인 황연, 홍연을 복원하고 창덕궁의 가마를 보수하기도 하면서 가마에 대한 조예가 더욱 깊어졌다. 화성행궁에 전시되어있는 가마와 건물 안의 목제품 중 많은 수가 이강연 선생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들이다.

국새 제작에 참여하다

이강연 선생이 가마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왕의 혼이 앉는 ‘신좌’, 술을 따라 올리는 상인 ‘수주정’, 향을 올리는 ‘향상’ 등 궁중 제례에 쓰이는 기물들도 그의 손에서 재현된다.

전주에 가면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다. 조선 태종 때 태조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해 완산, 계림, 평양 세 곳에 누전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완산(전주)의 누전을 경기전이라 부른다. 한양에서 전주로 어진을 모실 때 여섯 개의 가마에 싣고 갔다고 하는데 경기전에 전시되어 있는 가마는 진품들이다. 이 선생은 진품 가마인 신연, 향정,

가교 등을 보수했다. 또한 경기전에 있는 고종, 순종 어진의 단집도 만들었다. 가마복원을 향한 그의 열정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황실문화재단에서 가교장 명인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08년 1월, 대한민국 국새가 새로 제작되었다. 행자부 국새제작단에 각 분야의 기능인 29명이 모여 국새와 의장품들을 제작했다. 의정소식지에서 인터뷰했던 칠피장 박성규 선생, 두석장 박문열 선생도 이 작업에 참여했다. 8개월 동안 국새를 비롯해 배안상(국새를 찍을 때 사용하는 상), 배안상 복건(배안상 위에 까는 천), 국새함장(각종 의장품을 넣는 장) 등 국새 의장품 총 16종이 제작되었다. 이강연 선생은 배안상과 요판(상의 아래받침)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킨텍스에 상설전시장을 열고 우수공예품업체 소개책자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번호에서 만난 이강연 선생도 소개책자를 보여 주며 공예인들이 만들 엄두도 내기 어려운 것을 시에서 해 주니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시의 관심과 지원이 전통문화를 지키고 이어 가는 장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새삼 느꼈다.

이명혜 편집위원
mingher@hanmail.net



화성행궁에 전시된 가마.



의 장



배 철 호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다
(화정1·2동)
핸드폰 | 011-9271-2345
자 택 | 979-2345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제5대 고양시의회

부 의 장



윤 용 석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다
(화정1·2동)
핸드폰 | 010-3100-9854
자 택 | 973-4501

의회운영위원장



손 대 순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나
(원신, 고양, 관산동)
핸드폰 | 017-332-9137
자 택 | 969-5976

기획행정위원장



김 영 선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파
(대화, 송포, 송산동)
핸드폰 | 017-767-7566
자 택 | 914-7566

환경경제위원장



김 순 용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사
(석사, 중산, 정발산, 풍산, 고봉동)
핸드폰 | 011-372-3355
자 택 | 962-3355

건설교통위원장



선 재 길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마
(행신1, 3동)
핸드폰 | 010-3252-8833
자 택 | 971-8833

문화복지위원장



김 태 임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자
(마두1, 장항1·2동)
핸드폰 | 016-9237-3457
자 택 | 903-5556

기 획 행 정 위 원 회



김 필 레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아
(백석1·2동, 마두2동)
핸드폰 | 011-780-8283
자 택 | 976-8283



신 희 곤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사
(석사, 중산, 정발산, 풍산, 고봉동)
핸드폰 | 017-207-7799
자 택 | 976-0054



이 중 구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바
(능곡, 행주, 행신2동)
핸드폰 | 017-232-2898
자 택 | 974-2898



이 택 기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가
(주교, 흥도, 성사1·2동)
핸드폰 | 010-5359-5961
자 택 | 965-8999



최 국 진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사
(석사, 중산, 정발산, 풍산, 고봉동)
핸드폰 | 010-3102-2324
자 택 | 975-8444

기획행정위원회



최 근 덕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마
(행신1·3동)
핸드폰 | 019-376-3338
자 택 | 974-7269



김 홍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비례대표
핸드폰 | 011-381-5583
자 택 | 967-5583



선 주 만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바
(능곡, 행주, 행신2동)
핸드폰 | 011-725-6110
자 택 | 979-3438



이 봉 운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파
(대화, 송포, 송산동)
핸드폰 | 011-287-0045
자 택 | 914-2600



이 상 운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자
(마두1, 장항1·2동)
핸드폰 | 011-218-8211
자 택 | 903-7998

환 경 경 제 위 원 회

환경경제위원회



임형성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타
(주엽1·2동)
핸드폰 | 011-277-2487
자택 | 922-1300



김영복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라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
핸드폰 | 018-258-6528
자택 | 02-3158-1258



김영식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아
(백석1·2동, 마두2동)
핸드폰 | 016-372-4996
자택 | 814-4996



나공열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라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동)
핸드폰 | 010-5470-5090
자택 | 02-384-5090



박규영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비례대표
핸드폰 | 010-4150-5547
자택 | 813-9209

건설교통위원회



이인호

정당명 | 무소속
선거구 | 카
(일산2·3동)
핸드폰 | 010-9149-0250
자택 | 976-7333



이재황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가
(주교, 흥도, 성사1·2동)
핸드폰 | 011-354-9292
자택 | 964-2078



최명조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차
(일산1, 탄현동)
핸드폰 | 011-355-5674
자택 | 925-6222



길종성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차
(일산1, 탄현동)
핸드폰 | 010-5575-1961
자택 | 813-2345



김경섭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비례대표
핸드폰 | 011-519-9277
자택 | 964-1575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비례대표
핸드폰 | 011-291-9115
자택 | 815-9115



박윤희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타
(주엽1·2동)
핸드폰 | 010-8866-2697
자택 | 916-2697



한상환

정당명 | 민주당
선거구 | 나
(원신, 고양, 관산동)
핸드폰 | 010-8305-2159
자택 | 964-2882



현정원

정당명 | 한나라당
선거구 | 카
(일산2·3동)
핸드폰 | 010-5178-7724
자택 | 906-6548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손대순
부위원장 | 김경섭
위원 | 김경섭, 김영식, 박규영, 선주만,
임형성, 최근덕, 현정원

■ 의회전화번호

· 의장실	965-5012	· 부의장실	965-5012
· 의원실	965-5015	· 사무국장	965-5015
· 전문위원실	967-8049	· 의정팀	8075-3859~62
· 의사팀	8075-3867~8	· 의회홍보팀	8075-3880~3

시민의 소리

의회에게 바라는 시민의 소리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금 지원 여부 궁금

Q 정부에선 그린홈 내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와 고양시의 지원금 여부가 궁금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박00)

A 정부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전기생산)주택의 경우 시설비의 60%이내에서(08년도 보조금 지원단가:4,356천원/kw)무상지원하고 있고, 태양열(온수생산)의 경우시설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현재로선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에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2010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기업지원과 (Tel 031-8075-2366)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Tel 031-260-4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Q "조상땅 찾기서비스"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00)

A 조상땅찾아주기 신청은 전국 어느 구청이나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상땅을 찾기를 위해서는 찾으려고 하시는 분의 사망일이 기재된 제적등본(2007.12.31일 이전사망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이 필요합니다.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권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방문전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시청, 구청 등에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계획과 (Tel 031-8075-3091)이나 각 구청 시민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 신청 자격 여부

Q 2009년 기존주택 전세 임대 공지문을 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올해부터 어떤 정책인지는 몰라도 차상위계층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지만 하는 월세의 부담에 한숨만 나올 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라고는 휴대폰 요금 감면 하나... 정말 더 어렵게 생활하는 건 차상위계층일 수도 있는 데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만 1순위, 장애인은 2순위로 차상위계층이 설 자리는 정말 없는건지요. 2007년 2008년 경우와 같이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00)

A 2009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1순위였던 차상위계층이 삭제된 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2순위로 신설되는 등 지침이 변경개정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기존 차상위계층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 2순위가 되심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한 궁금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Tel 031-8075-3273)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 국토해양부 국민임대건설과 (Tel 031-436-8961)로 문의 바랍니다.



의회방청안내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께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방청방법

방청을 원하시는 날짜에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면 됩니다.

■ 방청의 제한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酒氣)가 있는 자
3. 정신이상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문의사항

고양시의회 사무국 : TEL (031)8075-3880~3

2009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09

2009. 4. 23(목) ~ 5. 10(일)
April 23(Thu) ~ May 10(Sun), 2009

경기도 고양시 호수공원
Goyang City, Lake Park

■ 입장권 판매

구분	성인 (대학생이상)	학생 (중·고등학생)	특별할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부사관 이하 군인)
현장권			
일반	9,000원	7,000원	6,000원
단체	8,000원	6,000원	5,000원
일반예매권	8,000원	6,000원	5,000원
고양·안연도 공동권람권	15,000원		
예매권	* 예매기간 : 2009년 1월 5일 ~ 4월 20일 * 예매처 : 롯데백화점, 고양·파주·김포·부천시지부 및 고양시 관내 농협, 농협 하나로마트, 정글북, 한양문고, 고양시 39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예매 [꽃박람회 홈페이지, G마켓] * 단 체 : 국내인 3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문의) 031-908-7758		

■ 야간관람

- 야간개장일시 : 주말·공휴일, 18:30 ~ 20:30
- 야간관람구역 : 기쁨관 구역, 야간 EVENT (희망관·행복관 제외)
- 야간관람료 : 5,000원